



개인연금의 이해(9): 실제 연금상품의 예

오병국 연구원

- 개인연금상품은 이론적으로 급부의 지급기간, 부보자수, 연금의 지급개시 시점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, 각 유형을 결합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.
-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험료 납부 및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신축납(flexible) 거치연금, 일시납 거치연금, 일시납 즉시연금 등의 형태로 연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.
- 신축납 거치연금은 보험료 납부가 경직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신축적으로 보험료의 크기나 납입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치연금상품임.
 - 신축납 거치연금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며, 연금 수령 시에는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됨.
 - 미국의 경우 연금상품구입자가 7년 이상 가입될 경우 계약을 중도해약하여도 해약벌칙금을 부과하지 않음.
 - 신축납 거치연금상품의 적립이자율은 실제금리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음.
- 일시납 거치연금은 한번에 목돈을 주고 연금을 구입한 후 일정한 거치기간을 지나서 연금을 수혜하는 상품임.
 - 일시납 거치연금의 적립이자율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변하지만 최저보장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 그 이하로 낮아지지 않음.
 - 일반적으로 면책조항이 있어 적립이자율이 미리 정한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해약벌칙금 없이 가입자는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수 있음.
- 일시납 즉시연금은 퇴직금이나 투자된 돈의 환수 등으로 큰 목돈을 가진 사람이 연금의 형식으로 전환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임.

- 배우자가 남겨놓고 간 생명보험금을 가지고 생존한 배우자가 평생에 걸쳐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적합한 상품일 수 있음.
-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은 주로 신체장애나 장래소득상의 장래 소득상실분에 대하여 목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가해자나 책임보험회사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이용해 피해자의 생존기간 동안에 소득상실을 보상에 줄 수 있음.

■ 특히, 영국의 경우에 연금상품구입자의 장수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하체 개인연금이 판매되고 있음.

- 전통적인 개인연금은 구입자의 건강상태와는 무관하게 성별과 연령에 의해 연금급부를 산출하나, 표준하체 구입자는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형성된 리스크 풀(pool)에서 표준체 구입자의 생존급부를 대체함.
- 표준하체 개인연금은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표준미달체의 경우 표준체보다 기대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하여 연금급부를 증액하여 지급함.
- 표준하체 개인연금은 증액 개인연금과 중대한 질병 개인연금으로 구분됨.
 - 증액 개인연금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평균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1개 이상의 건강상태나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함.
 - 중대한 질병 개인연금은 심장병, 암, 뇌졸중 등 5년 정도의 평균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건강상태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판매 대상으로 함.

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이 판매되고 있으나, 오직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이 가능함.

-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은행, 증권사 등에서 개인연금이 판매되고 있으나, 종신토록 지급하는 개인연금은 생명보험사에 한정되어 있음.
- 반면, 손해보험사, 은행, 증권사 등에서는 5년간, 10년간, 20년간 등으로 확정된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개인연금이 판매되고 있음.